

# 세금계산서와 차이 나는 매출액 (I)

글 조완석\_공인회계사

세금계산서 기준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고 난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하면 매출액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진행률을 적용하는 매출인식방법은 실제로 원가가 투입되는 정도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게 되므로 실제과정에 충실한 매출인식 방법이 되는 것이다

지난 번에 언급했던 D사는 중대한 영업환경의 변화를 맞아 감가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더 시급한 사항이 있었으니 바로 진행률에 의한 매출액 인식방법의 도입이었다. 즉 회사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과정을 파악해 본 결과 시스템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는 그 성격이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프로젝트 성격의 제조공정을 가진 회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기준에서는 용역의 제공 중 그 진행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 때 진행률에 의한 매출액을 인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형태의 제조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벤처기업들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매출인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진행률에 따른 매출액 인식방법이 더 합리적

첫 번째 이유는 각 회사마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를 '내부통제절차' 라고 부르고 있고 회사의 내부통제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만 신뢰성 있는 자료가 산출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초기단계에서는 무척 힘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이유가 우리 벤처기업들이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기준의 매출인식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사용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요구되는 방법을 왜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단지 기업회계기준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실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이제 다시 경영자들이 무엇을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회사의 영업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에 진행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진행률을 적용하는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실제로 적용하기까지 실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예상되고 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자.

## 내부통제절차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이러한 진행률을 적용하는 매출인식방법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세금계산서 기준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고 난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하면 매출액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진행률을 적용하는 매출인식방법은 실제로 원가가 투입되는 정도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게 되므로 실제과정에 충실한 매출인식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이 방법은 내부통제절차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예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프로젝트성격의 제조과정을 가진 회사에게는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고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중기청, 벤처투자정보망 구축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들고 투자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과 투자기관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동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과 한국컨설팅협회(회장 김형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벤처투자 평가기관인 KBAN(한국비즈니스엔젤네트워크)은 최근 KBAN투자정보망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KBAN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투자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기업을 방문해 투자상담·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투자정보를 전국의 엔젤클럽, 창투자, 은행, 증권사, 외국투자기관 등 300여 투자기관에 일괄적으로 제공해 준다.

KBAN은 이와 함께 ▲기업IR 자료 작성 지원 ▲투자설명회 개최 지원 ▲해외투자기관 연계 및 투자로드쇼 지원 ▲KBAN투자정보망을 통한 연중 상시 투자기관 연계와 홍보관리 서비스 일체를 정부지원으로 무료 제공한다. 기업들의 KBAN 투자 참여신청은 홈페이지(www.kban.org)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 ☞ 과기부, 해외 R&D센터 유치 전담반 조직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군)가 해외 첨단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센터의 국내 유치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중 전담반을 구성한다. 또한 금년말까지 해외 R&D센터 유치 전담조직을 설치, 외국기업과 대학 등을 상대로 홍보와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설립지원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담반 구성과 관련, 현재 별도법인을 설립하거나 관계기관에 기구를 조직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중국 진출 온라인게임업체에 표준계약서 보급

국내 온라인게임업체의 중국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 업체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희진)은 지난 달 21일 서울섬유센터에서 ‘온라인 게임업체의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표준계약서를 발표하고 향후 이를 무료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 업체와 현지 업체사이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업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제작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향후 국내 관련업체의 호응도에 따라 견본용 계약서 작성 대상을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영상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역시 중국 지역을 포함해 대만, 일본, 미주, 유럽 등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 ☞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모집

서울창업보육센터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업체를 모집한다.

입주 업체는 12~38평 규모의 사무실을 평당 보증금 20만원, 월 임대료 5000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 후 기술개발 및 사업운영과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센터내 공용기기, 회의실, 복사기, 팩스 등을 무료 또는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며 센터 홈페이지(www.sbi.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 전시 행사 소식

### 2003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학생, 교수, 연구원 등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을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창업경연대회, 창업스쿨 등 부대행사 등이 열리며 성공벤처기업 CEO 초청강연, 창업퀴즈 대회 등 각종 이벤트행사도 함께 열린다. 중기청은 이번 창업대전을 계기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www.venturestartup.org](http://www.venturestartup.org))를 참고하면 된다.

### '한중일 하이테크 비즈니스 포럼·상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북경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한중일 하이테크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첨단기술분야(정보통신, 생명과학, 에너지 환경)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전략과 사례발표를 통해 3국간 협력가능한 분야를 점검하고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포럼 참가기업에게는 업체당 1인 숙박비 또는 3국 첨단기술 전시부스를 지원하고 통역 및 번역, 행사기간 일부 중식과 교통 등을 제공한다.

참가접수는 이달 14일까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http://www.kotef.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국제협력팀 김태우 Tel : 02-6009-3142, E-mail : [ktwlife@kotef.or.kr](mailto:ktwlife@kotef.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 전북 중소·벤처기업 엑스포 개최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판매 및 수출증대를 위한 '전북 중소·벤처기업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학·연 컨소시엄기술관, 지도대학기술관, 창업보육관 등의 전시관(70개 부스)에 100여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채용박람회, 취업클리닉 세미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결과발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 경남 스마트 벤처 엑스포 개최

경남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창원경륜장에서 벤처산업의 활성화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스마트 홈 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3 경남 스마트 벤처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 신기술 및 스마트 홈 관련제품전시, 우수벤처 기업, 동아리 선발 시상, 중소·벤처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기업 투자 유치설명회, 중소·벤처기업 경영혁신 세미나, 스마트 홈 관련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벤·처·이·슈

### 디지털타임스

### 중소벤처 담보 있어도 은행돈 빌리기 어렵다

#### 상환능력 따져 대출제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담보가 있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어려워졌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기업 우대은행 등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 개인사업자에는 연간소득 등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행장 김광태)은 중소기업 신규대출시 담보가 있더라도 재무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을 나눈 값)이 1미만이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상환기에 영업종점이 전결할 수 있는 대출금

원을 50여원에서 50여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할 바 있다. 조흥은행은 유류 등지의 선전곡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DSR(Debt Service Ratio)총 차입금과 연간이자 합계/연간 소득이 30~40%를 넘을 경우 금리할 가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조흥은행은 저금리까지 신규로 3억원 이상인 대출기업에 대해 모나터링 대상을 전 거르기용으로 확대, 3~6개월 단위로 환급흐름과 상환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부실관리가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재검토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신규대출시 담보대출이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고 연상시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의 5~10%를 상환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다.

원재신기자 [vegetarian@dt.co.kr](mailto:vegetarian@dt.co.kr)

▲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을, 개인사업자에는 연간소득 등을 따져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담보가 있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

〈2003년 10월 16일자 디지털타임스 금융면〉

### 한국경제신문

#### 벤처, 울들어 821곳 간판내려

#### 8천개 이하로 줄어

1년전(2002년)에서 비하면 8천213곳(2002년)에서 8천213곳(2002년)으로 줄었다.

특·기기업은 벤처기업의 절반이

면서 벤처기업 수가 약 4천 5백여 곳

까지 감소했다.

3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난 9

월 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

계는 총 8천213곳으로 집계된 바

업가치가 줄었다. 벤처기업 수는

올해 9월 말 9천개를 넘어 8천

213곳으로 줄었다.

특·기기업은 벤처기업의 절반이

면서 벤처기업 수가 약 4천 5백여

곳까지 감소했다.

3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난 9

월 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

계는 총 8천213곳으로 집계된 바

업가치가 줄었다. 벤처기업 수는

올해 9월 말 9천개를 넘어 8천

213곳으로 줄었다.

특·기기업은 벤처기업의 절반이

면서 벤처기업 수가 약 4천 5백여

곳까지 감소했다.

3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난 9

월 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

계는 총 8천213곳으로 집계된 바

업가치가 줄었다. 벤처기업 수는

올해 9월 말 9천개를 넘어 8천

213곳으로 줄었다.

특·기기업은 벤처기업의 절반이

면서 벤처기업 수가 약 4천 5백여

곳까지 감소했다.



▲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과 까다로워진 벤처지정 심사로 인해 벤처기업 수가 해 9개월 동안 821개 감소했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

〈2003년 10월 25일자 한국경제 1면〉